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3 0506

Vol. 99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1 전립선암 | Hello 닥터_ 비뇨기과 성도환 교수 Medical point_ 전립선암





인하대병원

May
+
Jun 2013 Vol.99

파란자켓을 불러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차별화된 개인별 서비스로
편안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04	개원기념사	17주년 개원기념사
건강 한걸음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1 전립선암		
06	Hello 닥터	비뇨기과 성도환 교수
09	Medical point	전립선암
12	Health touch	골다공증, 여자들만의 병일까?
14		남성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으로
16		남성 골다공증, 올바른 식습관으로 예방
사랑 두걸음		
18	Special people	만화가 김수정
20	어디까지 가봤니	경기 고양 원당종마목장
24	모르면 지는거다	기발하고 솔직하고 뻔뻔한 웹툰 속으로
나눔 세걸음		
26	Today INHA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28	Global INHA	몽골..... 낯선 땅에서 지구의 가족을 돌보았던 소중한 체험
30	인하실표	슬로시티 청산도를 다녀와서
32	희망천사말레이	심리상담 복지활동가 강동례 씨
34	특특 약물상담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닌 머릿니
35	병원 탐방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INHA NEWS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8	Info desk	홍보영상 + 무료공개강좌 파랑새 소식 + 발전기금 기부소식



표지_ 장육진 作 - 가족 | 1954년작 | 캔버스에 유채 31.5×32cm |

‘찬스, 변화, 도전’ 꿈과 희망을 이루는 미래에 대한 선택!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인하대병원이 개원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7주년이면 의료업계 관례상 성년의 시기이며 다함께 축하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장기근속 표창을 받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헌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모범 직원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과, 특히 우리 협력사 직원 분들이 함께 수상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조희 행사 시, 끝날 무렵 원가를 부를 때 가슴 찡함을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입니다. 우리 원가의 2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다짐과 의지, 꿈과 희망 함께하는 인하대병원, 이루어라 그 이름 인하대병원, 힘차게 나아간다. 미래를 향해.”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 중, 2절을 좋아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개원 때 이 자리에서 꿈과 희망으로 함께 시작했던 병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희망의 꿈을 얼마나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 드렸었지만 대학병원의 개원 10년 후는 뉴 버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와 확장 또는 새로운 곳에 병원 건립 등의 성과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중간 단계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새로운 병원을 건립한다는 꿈과 희망으로 모두의 뜻을 모으고 있으며, 또한 작년에는 ‘아프로 플러스(*Apru*)라는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전을 되돌아보면, 인천의 한편에서 인하대병원 건물이 신축되었고 초창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기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의약분업, IMF 경제



17th anniversary
congratulations!

위기 등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모든 의료계가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가 그 난관과 역경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계의 현황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극심합니다. 아주 뛰어난 일등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절실히 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 가구당 월 평균 보건비 지출액이 171,4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 하는데 그쳤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2차 금융 위기인 2009년 1분기 때의 -1.2%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 수치이며, 그만큼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2.9% 증가분도 치과 서비스에 집중되어서 전년 대비 18.8% 늘어난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 외래치료 서비스 지출은 -2.2% 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비 지출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지만, 통계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보건의료비를 줄이고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료원장 취임사에서 혁신과 효율, 주인의식을 내세우고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 조희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다’ 는 인용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인하대병원의 직원이 되겠다는 선택과 다른 기관으로의 선택, 이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등, 삶은 수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3C’ 바로 ‘B(Birth)’ 와 ‘D(Dead)’ 사이의 ‘C’ 를 말씀드렸습니다. ‘Chance,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Change,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Challenge,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 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원 17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잡고, 변화하고, 도전해야 만이 우리 원가에 나오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현재 JCI 재인증을 위해서 수검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진료실을 포함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에, 이번에도 무난히 재인

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은 수검 기간 동안 좋은 성적으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JCI 재인증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환자, 내원객,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과정이니 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인천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로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JCI 수검이 끝나면 이와 관련된 시설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것이며, 최근 1차 공사를 마무리한 응급실 영역에 대한 2차 개선공사도 병행될 것입니다. 응급실 2차 공사는 보호자 대기실, 소아진료실, 성인진료실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쾌적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국내 어느 병원이든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수의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충원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중 인하대병원이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우리의 위상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참여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환자들이 인하대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이며 최초 진행인 만큼 시행착오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꿈과 희망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병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개원 17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의료원장 박승림



자손 번식 끝나고 나면 말씀꾸러기 되는 전립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남성의 자존심을 지켜라!



성도환 교수

—•• 비뇨기과
A Urologist & Prostate

비뇨기과를 찾는 사람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면 선뜻 말하기를 주저한다. 부끄럽다며 빨리 내원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하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뇨기과는 어디에도 말 못하는 환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과이다. 전립선암 전문의 비뇨기과 성도환 교수는 그중에서도 남자만의 아픔, 전립선을 치료하는 남자만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남자 의사이다. (글_이정희 자유기과가 사진_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전립선이요? 정자 보호군, 지원군, 그리고 자존심!

그는 서슴지 않고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데까지 지나는 모든 장기를 보는 것이 비뇨기과의 진료라고 쉽게 설명한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고환 등을 말하는데 그중 비뇨기과의 빅3라 하면 전립선, 방광, 신장 관련 질환 이란다.

전립선은 꼭 필요한 기관이냐고 묻자, “하하하, 그렇게 물으면 대답이 참 모호하죠. 자손 번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정자를 보호하는 정액을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 지원군이라고 할까요? 생물학적 남성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린 장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환자들이 전립선에 불편을 느껴도 시선을 우려해 주저하다 병을 방치하고 예후까지 안 좋을 땐 못내 아쉬운 성 교수다. 최근 40대 후반 환자를 진료한 성 교수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독성을 부리는 암이 되고 만다고 전한다.

생의 마지막에도 웃음 남긴 환자, 코끝이 짙해

전립선 주위엔 무수하게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다. 그래서 성 교수는 수술할 땐 길을 잘 찾아야 하고 그 길이 바로 수술 성공의 길이라고 말한다.

“경험과 배려로 집중합니다. 상당히 예민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속으로는 졸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해야 합니다.”

성 교수는 스텝에 대한 배려이고, 지휘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단연코 말한다. 그리고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과 혈관이 붙어 있어 전립선 제거 후 성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손길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남자들이 유난히 예민한 이유도 이 때문이란다. 그러나 전립선암 환자에게는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다고 성 교수는 생각한다. 암이라는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어야 하기에 그렇고, 치료 시 순응 정도가 달라 성과가 좋은 것도 이유이다. 간혹 가족이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보호자를 설득하는 번거로움도 마다치 않는 그이다. 끝까지 마음에 남는 환자라면 학교장 출신의 70대 전립선암 환자를 꼽는다. 수술 후 몇 년 지나서 재발하였는데, 60대 발병 후 수년간을 웃는 얼굴로 암과 싸우시던 미소는 오히려 성 교수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 ‘고맙다’ 고 하시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짙하다고 한다. 성 교수 역시 영안실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빌었다.

의사는 환자와 쌍방향 소통해야, 그래서 매기 시작한 나비넥타이

전립선은 죽고 사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어도 사는 동안 삶의 질을 심각하게 결정짓기 때문에 심한 경우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성 교수다. 그래서 또 말을 잘 들어주면 병의 반은 낫는다고 생각하





1. 회전 시간에도 전공의들과 웃음으로 소통하는 성도환 교수.
2. 전립선 수술 전 세심함은 기본이다.
3.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을 통하여 직장의 전방에 있는 전립선의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Profile

성도환 교수는 198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보건원(NIH)내의 국립암연구소(NCI)내에서 1년간 연수한 바 있다. 전문치료분야는 비뇨기계 암(종양), 전립선 및 결석, 비뇨기계 암의 진단 및 진행에 관련된 인자들에 관한 연구와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뇨기계 암의 내시경적 수술 및 근치적 수술 치료에서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뇨기과 중앙학회에서 2007년 연재발표 우수상 및 2008년 임상분야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 환자를 맞는다. 관심과 배려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의사인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나비넥타이 역시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매기 시작했단다.

성 교수가 총무이사로서 있는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블루애플’ 캠페인을 통해 전립선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단다. 또 PSA 라고 하는 전립선특이항원이 밝혀지면서 암 진단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50세 이상과 가족력이 있는 40대에서는 매년 검사받으라는 말을 전하며 검사비용이 비싸지 않고 간단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란다.

수술할 때 수관이라면 최신음악을 틀어놓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턴, 간호사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팀’ 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완벽한 수술을 위한 팀워크에 대한 성 교수의 작은 배려이다. 물론 야단, 달랠, 줄음 깨치기는 빠지지 않는다며 웃음을 보낸다.

“환자가 만족해하면 저 역시 행복해집니다. 완쾌한 환자에게 듣는 ‘고맙다’ 는 말은 어떤 말보다도 의사인 제 가슴을 설레게 하죠. 늘 궁금해 하는 환자에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의사란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거든요. 산의 정상에서 외치는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등산광인 그다운 비유다. 성 교수는 인하대병원 등산동아리 회장이기도 하다. 등산은 그의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며, 넉넉함으로 환자를 맞이하는 미소도 그 때문일 게다.

며칠 후 지리산 등반계획을 말하는 성 교수의 발걸음은 벌써 산을 오르는 듯하다. 대자연과의 만남을 위한 그의 배낭은 소박하다. 커피와 물, 과일, 고구마 등이 전부다. 산에 오른 기쁨의 보답으로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돌아와 환자를 맞는 성 교수다. 웃음이 습관처럼 되기는 쉽지않을 텐데 인터뷰 내내 성 교수의 표정이 그랬다. 촬영차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는 내내 만나는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전공의들도 함께 촬영하기를 반긴다.

성 교수의 환자들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따뜻한 웃음으로 위안되리라.

훗날, 고향인 진주의 산, 들, 바다와 어울어진 자연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성도환 교수, 지금도 자연에서 얻은 많은 기쁨을 환자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 연중기획 | 암! 함께이겨내요 / 암시리즈 11 전립선암

2011년 9/10월호-유방암, 11/12월호-대장암 2012년 1/2월호-소아암, 3/4월호-위암, 5/6월호-간암, 7/8월호-혈액암, 9/10월호-폐암, 11/12월호-갑상선암
2013년 1/2월호-자궁난소암, 3/4월호-두경부암, 5/6월호-전립선암, 7/8월호-췌 담도암, 9/10월호-뇌암, 11/12월호-피부암



전립선암!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남성의 생명을 위협한다

전립선은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은 아니지만 남성 인체의 중요한 배설물인 소변과 정액의 통로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립선을 지나지 않고는 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과 정액 배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40대 후반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는 비대증은 소변보기가 힘들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글_ 성도환 교수 / 비뇨기과)

남자에게만 있는 전립선 암이란?

전립선은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호두알 크기에 불과한 작은 기관으로, 생명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없어도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전립선은 생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며, 각종 무기질과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액은 살균과 항균 작용을 하고, 정자에 힘을 제공합니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중에서도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정액을 용해시켜서 물같이 만드는 작용을 하며, 특히 간단한 혈액검사로 쉽게 측정할 수 있어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남성 인체의 중요한 2가지 배설물인 소변과 정액의 통로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소변과 정액은 전립선을 지나지 않고는 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전립선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볼 때와 정액을 배출할 때에 문제를 야기하여 남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의 크기는 30대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으나 40대 후반부

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인자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거나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전립선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터 커지기 시작하면 소변보기가 힘들어 지면서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발병 연령 낮아지는 추세

서구형 남성암으로 인식되던 전립선암이, 국내에서 신규 환자 수가 20년 동안 20배 이상 급증하여 남성암 중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암의 발생률이 다른 암에 비해 가장 많은 200% 이상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차지한다는 최근의 보도는 전립선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립선암 환자의 증가는 전립선암 진단법의 발달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들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현재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평균 나이는 65세이나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전립선암의 원인 - 유전적 요인이 커

전립선암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나 형제간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전립선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3~5배가량 높아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그 외에 식이 습관,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상호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전립선암은 요도에서 조금 떨어진 전립선의 가장자리에 생겨서 바깥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소변을 보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중에서 소변 보기가 힘든 경우는 전립선암보다는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 비뇨기과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환자가 자각 증상을 느낄 때면 어느 정도 전립선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은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어렵고, 환자의 고통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고 피검사인 전립선특

이항원(PSA) 검사가 권장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암의 진행

전립선암은 빠르게 진행되는 폐암이나 위암 등 다른 암과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게으른 암” 또는 “착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암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다른 장기의 암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전립선암의 병기와 전립선암 세포의 분화도가 중요하지만, 환자의 연령과 향후 생존 기간 및 평균 수명과 환자의 전신 상태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립선암의 완전한 제거가 중요하지만, 치료에 의해 기대되는 수명 연장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고려하여 환자 본인과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논의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며, 완치율도 좋기 때문에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치료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하게 있지만, 전립선암 환자의 상태와 전이의 정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감안하여 주치의와 상담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의 예후

전립선암의 예후는 전신상태, 연령, 병기 및 암세포의 성

질(분화도)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진행이 늦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암 덩어리가 전립선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70~90%, 전립선 주위에 퍼져 있는 경우가 50~70%, 림프절전이가 있는 경우가 30~50%, 뼈나 폐 등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20~30%로,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예후가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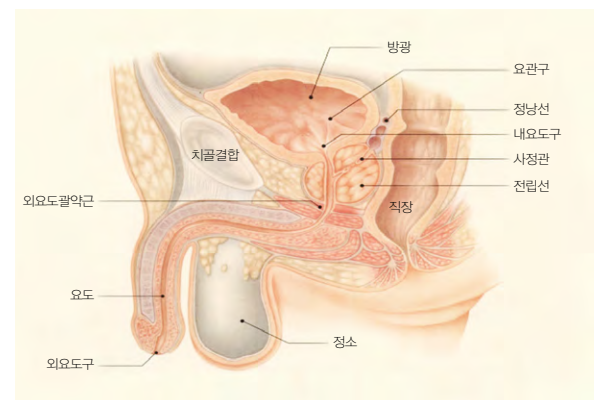
전립선암의 예방

일반적으로 암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 과일과 채소를 가능한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가능한 적게 섭취하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채소류 중심의 건강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붉은 육류는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은 1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빵이나 시리얼, 곡물류, 쌀, 면, 콩 등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식이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거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들을 소개합니다. 라이코펜 성분을 포함한 식품(토마토, 딸기, 수박, 자몽, 살구 등), 이소플라본과 제니스틴 성분을 포함한 식품(콩, 콩으로 만든 식품)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을 포함한 식품(녹차 등)이 있습니다. 음식 섭취를 통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운동 등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의 언급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인자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거나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전립선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의 : 비뇨기과 ☎ 032-890-2360



“70세 이상이면
남자라도
골밀도 검사를”

“50세 이상
남자 100명 중 8명이
골다공증”



골 다 공 증 , 여 자 들 만 의 병 일 까 ?

고혈압, 당뇨처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 목표

골다공증, 여자들만의 병일까?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병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위생과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많은 질병들이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수명이 길어지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더 문제가 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그런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골밀도는 점점 낮아지며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합병증이 문제가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뼈가 쉽게 부러지고 잘 붙지도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잘 일어나고 골다공증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폐

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알려지고 여성의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은 여자들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골다공증이 여자들만의 질병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꼬부랑 할머니만 있고 꼬부랑 할아버지는 없는 걸까요?

골다공증은 여자들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4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 여성의 36%, 남자의 8%가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50세 이상 남자 100명 중 8명이 골다공증이 있었고, 전 단계인 골감소증까지 생각한다면 골밀도가 평균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의학적으로 이야기
다들 오셨는데 뼈를 검사해봐도 꼬부랑 할아버지랑 꼬부랑 할머니랑 같아요. 꼬부랑 할머니는 왜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까요?
하라면 할머니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있고 이보인한 관절염 때문에 척추가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휘어진 거예요.
정말 골다공증이 아니라 관절염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 그런 것이라니 했었지만 요즘에는 골밀도 검사도 생겼기 전에
미리 골다공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골, 조선훈 전담의 / 가정의학과)



다 낮은 남자들이 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중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자기
가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는 여자가 30%였지만, 남자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
다. 골다공증이 있는 남자 8명 중 자신에게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1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렇게 골다공증은 상대적으로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런 경우 남자도 골밀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단 70세 이상이라면 남자라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뼈는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만으로도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외에 알려진 여러 요인들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50세 이상의 남자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도 골밀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관절염 등으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장기 복용하거나 사춘기가 늦었던 경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외에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질환들,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도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도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경우는 이로 인한 골절을 줄이기 위해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식이조절과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칼슘만 부족하다고 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 보충은 중요합니다. 비타민D는 칼슘의 체내 흡수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이 또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4번, 한 번에 30-40분씩 체중부하 운동을 하는 것도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술은 허용 음주량 밑으로 줄이는 것이 좋는데 소주는 하루에 150cc, 맥주는 660cc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므로 끊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에 더해 골다공증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골다공증도 확인해야 하는 만성병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목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평소에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인천시 마라톤 대회에서 1등도 했을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100명 중 8명에 들어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근 들어 언론에 남성의 골다공증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성 골다공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50세 이상의 남자라면 자신에게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요소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해당된다면 한 번쯤 건강검진을 할 때 골밀도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 가정의학과 ☎ 032-890-2240



남성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적정한 체중과 근육량으로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최근 들어 남성에게 발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골밀도를 떨어지게 하는데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는 생활습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글_안주환 운동처방사 / 당뇨비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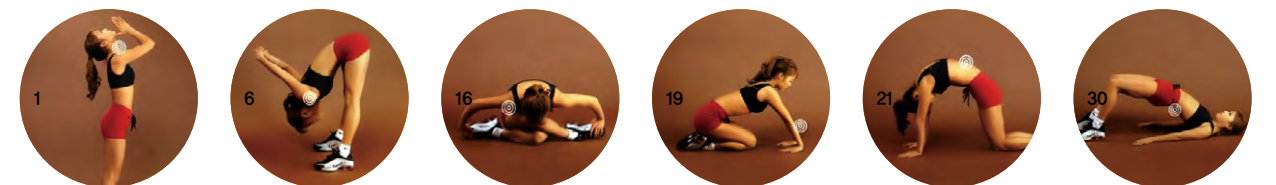
골다공증은 뼈속에 있는 골량이 감소하여 뼈의 밀도가 낮아져 영성하게 얇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쉽게 골절을 유발하기도 한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자신의 체구성을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으로 만드는 게 좋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인 맨손체조나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며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추후에는 유산소성 중력지지운동을 통해 뼈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여 주며 뼈의 손실을 지연시켜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 등산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이거나 관절의 통증을 앓고 있고, 관절의 가동범위가 극히 작은 경우에는 수중걷기나 수중에어로빅이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다. 즉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이라 불리는 건강체력 중 근력과 유연성 운동에 중점을 주는 방법이다. 근력운동은 우리가 흔히 넓적다리, 엉덩이관절이라고 불리는 대퇴부와 고관절 등 주로 하체 상부의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무릎, 발목 등 하체 하부운동도 가볍게 병행하는게 좋다. 운동 시간은 적당한 햇빛 아래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낮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는데 골다공증의 칼슘대사에 필요한 비타민D가 합성되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유산소운동: (초기) 걷기, 맨손체조 ▶(점진적) 계단오르기, 등산(관절 통증이 있을 시 수중걷기, 수중에어로빅)
- 근력운동: 대퇴부, 고관절부위 등 주로 하체근력운동
- 유연성운동: 스트레칭

●문의 : 당뇨비만센터 ☎ 032-890-2215/3360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하체 근력 운동 - 각 10회 반복

1. 서서 무릎 구부리기
2. 뒤통치 들기
3.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유연성운동 스트레칭

1.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로 젖혀 들기
2. 한 손으로 서서히 머리 당겨주기(좌·우)
3.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숙이기
4. 양손을 뺀고 최대한 위로 올리기
5. 양손을 뺀고 상체 옆으로 기울이기(좌·우)
6. 각지긴 팔과 함께 상체 숙이기
7. 한 팔을 쪽 펴고 반대 팔로 당겨주기(좌·우)
8. 한쪽 팔을 머리 위로 구부려 반대 팔로 눌러주기(좌·우)
9. 한 손으로 발끝 잡고 뒤로 당겨주기(좌·우)
10. 무릎을 편 채로 상체 숙이기
11. 한쪽 다리만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 숙이기(좌·우)
12. 양손으로 무릎 잡고 어깨 비틀기(좌·우)
13. 무릎을 뺀고 앉아 상체 숙이기
14. 한쪽 다리만 구부려 상체 숙이기(좌·우)
15.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상체 숙이기
16. 양다리를 교차시켜서 상체 숙이기(좌·우)
17. 양다리 벌리고 앉아 상체 숙이기
18. 앞다리는 구부리고 뒷다리는 펴서 상체 뒤로 젖혀 들기(좌·우)
19. 손끝을 무릎을 향해 놓아주고 앉기
20. 팔을 펴서 상체를 뒤로 눌러주기
21. 무릎 꿇고 앉아 몸 움츠리기
22. 무릎 꿇고 앉아 상체 숙이기
23. 무릎을 땅에 지탱하고 힘을 들어 올려 상체 숙이기
24. 무릎을 땅에 지탱하고 겹친 손을 사선으로 놓아 눌러주기(좌·우)
25. 손끝부터 발끝까지 눌러주기
26.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기(좌·우)
27.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기
28. 한손으로 반대 다리를 눌러주며 몸 비틀기(좌·우)
29. 양발 끝을 머리 뒤로 넘기기
30.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땅에 지탱하여 허리 들어 올리기



55세 이상의 남성에서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잦은 회식, 과도한 음주와 흡연, 손님접대나 회의로 인한 커피와 탄산음료의 과다섭취, 과도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 40~50대 남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활형태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 55세 이상 남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안숙희 / 영양팀)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이 원인 남성 골다공증 올바른 식습관으로 예방

칼슘을 적절히 섭취합니다

골대사회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차원에서 50세 이전 성인 1일 1,000mg, 50세 이후는 1,200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은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들어있으며, 또한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D와 유당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인자이므로 우유나 유제품은 우수한 칼슘 급원 식품입니다. 따라서 칼슘권장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칼슘함량이 높은 식품인 멸치나 방어포, 두부, 녹황색 채소 등을 반찬으로 섭취하며, 하루 2회 정도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권장됩니다.

- 1일 1000 ~ 1,200mg 칼슘을 섭취하려면?

구분	메뉴	칼슘(mg)
아침	방어포구이 1장(15g)	148.7
	냉이무침(소) 1접시	72.5
간식	우유 200ml	210.0
점심	두부구이 2/5모(160g)	201.6
	미역줄기볶음(소) 1접시	72.7
간식	우유 200ml	210.0
저녁	멸치볶음(소) 1/2컵(30g)	273.2
	비름나물(소) 1접시	102.4
1일 칼슘 총 섭취량		1,291.0



비타민D를 적절히 섭취합니다

칼슘흡수를 높이는 비타민D는 피부로 합성되지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거나 야외활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D 급원 식품은 등푸른 생선, 달걀, 버섯, 우유 및 유제품 등이며, 비타민D가 강화된 우유나 두유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골밀도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술을 마실 경우 1일 1~2잔 이내로 조절하고, 금연이 필요합니다.

카페인과 탄산음료 섭취를 줄입니다

직장 남성들은 흔히 하루 2~3잔의 커피를 마시며, 최대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인과 탄산음료는 소변으로의 칼슘배설을 촉진시키므로 골다공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조절하고, 탄산음료의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량의 단백질 섭취를 피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 시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이 증가되므로 단백질 급원 식품인 육류, 생선, 두부, 계란 등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끼니에 생선(소) 1~2토막 또는 두부 2/5모 정도의 섭취가 권장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비타민C는 칼슘흡수를 돕는 인자로 흡연이나 체내 스트레스 증가 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 시 칼슘의 배설량도 증가되므로 음식을 싱겁게 먹도록 하며,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젓갈, 장아찌 등 염장식품은 피하도록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상차림

메뉴 잡곡밥, 시래기 된장국, 완자조림, 대구조림, 부추무침, 김치
간식 우유, 토마토

-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합니다
- 단백질 급원 식품인 어육류군의 양을 조절하여 먹습니다.
- 녹황색 채소 1~2가지를 섭취합니다
- 간식으로 우유를 꼭 먹습니다.
- 비타민C 섭취를 위해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Soo-Jung, Kim



한국적인 캐릭터 돌리를 30년째 키우는 돌리 님은 아빠~

“10년 뒤에도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리고 있겠죠?”

‘아기공룡 돌리’의 아빠 만화가 김수정은 올해 겨울 우리 곁으로 돌아올 돌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며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다. 비록 남는 장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에 작은 청량제가 되고 싶다는 돌리 아빠 김 감독을 만났다.

(글_ 이정희 자유기고가)



돌리를 꼭 닮은 김수정 감독은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초능력을 선사하고 싶다.

인간과 영혼
혼자서 버티는,
세상이 완악해 되/로움
우리가 응원 하거든요!
호이/!!!



“동물을 의인화 한 돌리를 생각했다. 차별화된 동물을 생각하다보니 공룡을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란다.”

애니메이션으로 컴백을 준비하는 ‘돌리’

토종 캐릭터 ‘돌리’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출생을 맞는다.

김 감독이 처음 돌리를 탄생시킨 건 30년 전의 일이다. 당시를 회상하면 창작의 자유가 없고, 지나친 심의 때문에 작가의 상상조차 마음대로 펼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현실적인 아이들 모습은 반항도 해보고, 아픔도 겪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커야 하는데, 심의대로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응하는 캐릭터야 하는 거죠.”

나름의 반기를 든 김 감독은 동물을 의인화한 공룡 돌리를 생각한 것이다. 그 당시 공룡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때지만 모든 동물의 아기는 귀엽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탄생한 돌리는 독자가 ‘재미있다’고 공감할 할 때면 김 감독에게 행복을 주기도 했다.

“과거나 지금도 제가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화를 통해 행복을 곱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든 삶에 청량제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올겨울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준비에 바쁜 김 감독이다. 흔히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바보라는 말이 있다. 제작비는 많이 들지만 히트를 해도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란단.

이를 모르는 김 감독이 아니다. 그에게 우리의 정서가 담긴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하고 싶은 고집과 자긍심, 오기가 발동한 게다. 우리 것 하나쯤은 남겨서,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한국적 정서를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글도 깨우치기 전 환희의 충격을 준 만화

김 감독이 만화를 처음 접한 것은 경남 진주에 살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다. 형을 따라간 만화방에서 글도 모른 채 만화책을 보고 ‘환희의 충격’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그날 본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렸다. 그날 처음 잘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넨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도화지를 사주시며 지원해주셨단다.

“제가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창작의 고통, 사회적 절망감 등 많은 난관이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겨냈던 거 같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육체미(?)는 헬스로

작품 활동을 할 땐 며칠씩 밤새우기가 다반사였지만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다. 94년도 감상선향진증을 앓아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던 터라 지금은 하루 2시간 30분씩 헬스를 하고 과일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을 챙긴다. 3번의 결심과 도전 끝에 2000년도에 담배를 끊는 데 성공했고, 술은 몸에 소화효소가 없어서 전혀 하지 못한다며 천복이란단다. 김 감독은 운동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은퇴 없이 일을 하려면 현역의 기본은 ‘건강’이라는 틀 안에서 이를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일까? 10년 뒤의 모습을 문자 서슴없이 답한다. 아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김수정 감독은 이제 스멀스멀 살아나는 작업 욕심을 돌리 애니메이션에 온전히 쏟아낸다. ‘행복’이란 이런 거 아닌가 싶다. 결과가 가기 전까지의 희망에 찬 ‘기대감’ 말이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1위 돌리’ 자리를 우리 한국인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의 숨결까지 전달되기를.....

목장에 들었는데 별이 가득 찬다. 연두거나 초록, 혹은 그보다 더 짙은 청록의 별이다. 아니, 크고 드넓은 스펙트럼으로 바람에 흔들리며 빛나는 초록이니, 숲과 초지가 은하수처럼 수다스럽다. 그러니 이곳에선 누구든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열어 보시라. 나무며 들풀 사이를 비집고 드는 햇살을 초록의 바람이 희롱한다. 사각거리며 서걱거리며 초록을 흔드니, 아~ 기분 좋다. 초록이 주는 기분 좋은 예감, 원당종마목장에선 알아쉬며 그 바람을 포식하시라. (글/사진_이시목 여행작가)

風景

유쾌한 여름 풍경으로의 초대 ...

수채화 같이 펼쳐진 목장 길 산책

길은 나무 울창한 언덕을 넘어 서삼릉 숲으로 이어지고 있다. 벌써 바람에선 열은 나무냄새가 난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진 가로수는 '사시나무 떨어듯 한다' 던 속담 속의 바로 그 은사시 나무다. 가벼운 바람에도 잎이 사정없이 흔들려 주위를 꽤나 요란하게 만드는 나무. 하지만 은사시나무는 그 흔들림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답다. 바람이 일 때마다 물결처럼 햇살에 반짝이는 잎이라니, 상상해 보시라. 은빛 파도가 여름 숲에 닿은 듯 그 찰랑거림이 인상적이다. 그러니 부디 이 길에선 천천히 걸으시라. 차로 급하게 달려 지나버리기엔 아까운 길이고 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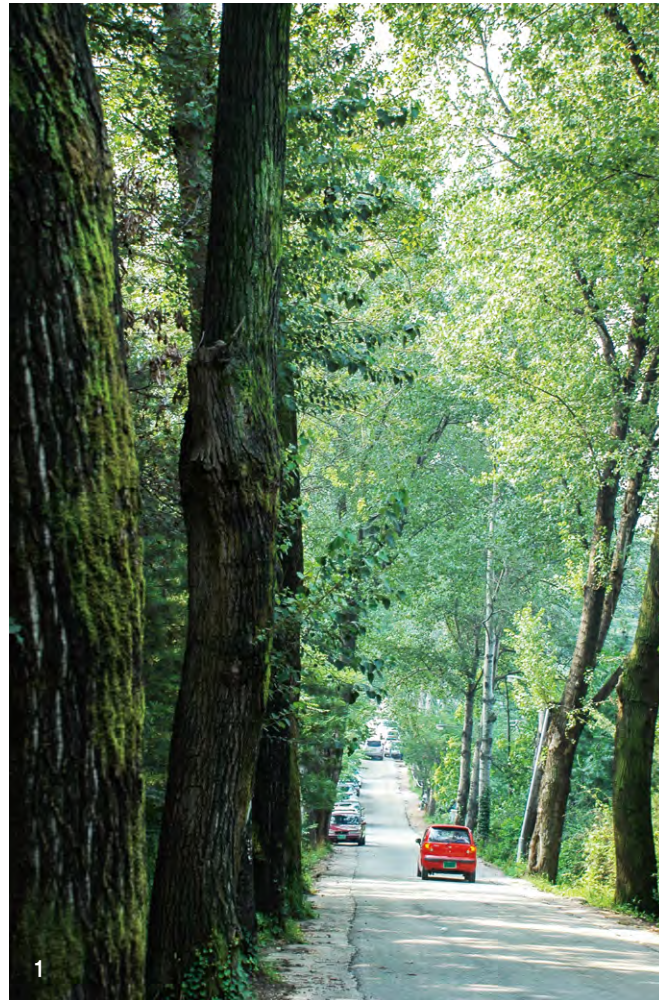


오솔길을 지나 목장 입구를 지나면 길은 곧, 풀냄새 묻어오는 초원에 닿는다. 초원 위에는 윤기 흐르는 경주마 40여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한눈에 담기지 않을 만큼 너른 초원은 약 11만평.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한 펜스가 짙은 초록빛의 초지와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경주마로 활약할 수많은 말들을 길러내는 곳. 그래서 마리당 2억~6억 원을 호가하는 디디미 등 씨수말(종모마)과 함께 예비 경주마인 육성마와 혈통을 연구하는 연구마 등 40여 마리가 모여 있다. 따라서 출입은 자유롭지만 말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또 갑자기 말이 차거나 물 수 있으므로 말을 만지거나 말에게 풀을 주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입구에서 시멘트 포장인 목장길을 따라 700m 정도를 더 올라 가면 관리사무실이다. 수채화 같은 목장길 풍경은 관리사무실 뒤편 야산 밑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더 아름답게 펼쳐진다. 초원 위에 한 그루 우뚝 솟은 소나무와 흰색 펜스, 언덕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황톳길의 어울림이 이국적이다. 그래서일까, 이곳은 드라마나 CF, 영화의 촬영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KBS '야망의 전설'과 '질주'를 비롯해 MBC의 '보고 또 보고', SBS의 '커피프린스 1호점' 영화 <각설탕> 등 지금까지 찍은 작품만 20~30여 편이라고 하는데, 언덕까지만 개방되어 있어 가까이 다가가 말들을 직접 볼 수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산책로를 따라 놓여 있는 벤치에서 앉아 쉬며 간식이나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정문 경비실에서 돗자리를 무료로 빌려와 푸른 초원을 눈앞에 깔고 앉아 한껏 뒹굴어 보아도 된다.

오래된 숲에서 즐기는 여름 소풍

종마목장의 정문 앞에는 조선 말기 왕실의 가족 묘지인 '서삼릉(西三陵)'도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 조선 제11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묘인 '희릉'과 인종과 그 비인 인성왕후의 묘인 '효릉', 조선 제25대 철종과 철인왕후의 묘인 '예릉'이 있어 삼



1. 바람에 물결처럼 은빛으로 반짝이는 '서삼릉 은사시나무길'
2. 흰색 펜스와 초록의 들풀이 어우러져 더욱 자연스러운 원당종마목장
3. 종마목장 입구에서는 말을 직접 타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릉으로 불리는데, 장경왕후는 KBS 대하드라마 '왕과 비'에서의 폐비 윤씨를 이룬다. 활엽수림이 울창한 서삼릉에는 또 희릉, 효릉, 예릉뿐만 아니라 역대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의 묘 45기도 함께 있는데, 아쉽게도 희릉과 예릉과 의령원, 효창원 등 4개의 능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왕가의 태를 묻어 둔 태실과 조선왕조의 황혼을 겪으며 한 많은 생을 마친 위친왕의 묘소 등 나머지 묘들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능과 숲이 주는 안락함이 있어, 그 그늘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머물며 쉬어가기 좋다.

서삼릉과 종마목장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서삼릉 입구 삼거리에 있는 허브랜드에도 들러보자. 50여종의 허브를 키우는 이곳에서는 무료로 민트 차를 맛볼 수 있고, 허브 잎으로 만든 허브 팥빙수나 허브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허브 화분과 허브를 활용한 가공품도 판매하니, 맘에 드는 허브가 있으면 구입해 와 집 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도 좋을 일이다. 베란다 한편에 짓든 향기만큼 더위에 지친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을 테다.



4.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삼릉의 희릉 전경
5. 드넓은 초원과 아름다운 말이 있는 원당종마목장의 여름 풍경
6. 키 큰 소나무 아래 벤치에서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는 연인

travel TIP_

원당종마목장(02-509-1682~4)의 입장료는 무료며,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음료를 파는 매점이 없으므로 도시락과 물, 간식 등을 챙겨 가는 것이 좋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며,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동절기 때는 오후 4시까지)까지다. 서삼릉(031-962-6009)의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은 무료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원당허브랜드(<http://원당허브랜드.kr>, 031-966-0365)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입장료는 없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개방하며, 허브 심기와 허브향초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교통

서울 구파발에서 통일로를 따라 일산 방향으로 5분쯤 가다 만나는 삼송리 검문소에서 원당 쪽으로 좌회전한다. 이곳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서삼릉, 농협대학, 원당목장' 이정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들어선 다음, 음식점들을 지나 숲 속 길로 들어서면 농협대학이다. 서삼릉 입구는 농협대학을 지나 2km쯤 더 들어가면 만나는 키 큰 가로수 길을 지나 보이는데, 차는 그 가로수길 끝에 있는 1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세워두면 된다. 주차공간이 비좁은 편이고 주말에는 체중이 심해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아예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내려 5번 출구로 나오면 마을버스 타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041번 마을버스를 타고 10~15분 정도를 달리면 종마목장 입구에 도착한다.

맛집

원당종마목장 근처에서는 서삼릉 보리밥집(031-968-5694)과 너른마당(031-962-6655)이 맛있는 집으로 알려져 있다. 서삼릉 보리밥집에서는 5~6가지 니물과 함께 나오는 보리밥 정식과 시래기 수제비를 별미로 맛볼 수 있고, 너른마당에서는 우리밀 칼국수와 통오리 밀쌈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목장과 서삼릉 곳곳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숲 그늘이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겠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킁킁 웃고 있고 특정 요일만 되면 유난히 인터넷을 들락날락거리며 초조해한다면 그것은 화면 위의 만화, '웹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짬뽕이 웹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글_ 임현숙 자유기고가)

기발하고 솔직하고 뽀뽀한 웹툰 속으로

“아직도 책장 넘겨? 난 손가락으로 밀어~”



2013년 대한민국은 가히 웹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웹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10대의 전유물 이었던 '보물섬', '윙크' 등의 만화 잡지는 사라졌지만 요일마다 인기 웹툰이 업데이트 되는 시간엔 그 웹툰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는 10대부터 30~40대까지의 남녀 불문한 독자들이 웹툰에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웹과 카툰의 합성어 '웹툰'의 매력

웹(Web)과 카툰(Cartoon :만화)의 합성어인 웹툰(Webtoon)은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를 의미한다. 그 역사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만화 판의 새 주류로 침체된 출판계를 부활시키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웹툰 한 컷의 계산된 상황과 한마디의 대사는 유행어가 되어 빠르게 번지며 웹툰 독자들을 하나로 묶으며 그들을 웃기고 울리며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이렇듯 웹툰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은 무엇일까? 웹툰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취향과 기분에 맞게 클릭과 손가락 터치만으로 무료로 쇼핑하듯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책장을 넘기는 만화책과 달리 스크롤을 내려가며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흡인력과 글보다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은 '베스트 도전' 과 '나도 만화가' 코너를 통해 누구든지 자신이 창작한 만화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작품의 작가에게는 정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누구든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웹툰의 무궁무진한 소재와 주제로 이어졌다. 또 좋아하는 웹툰에 별점과 댓글, 한 줄 감상평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독자와 독자, 독자와 작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는 것도 웹툰의 매력이다. 때문에 작가는 촌철살인 단 한 컷에 모든 것을 걸고 독자는 마니아를 자처하며 충성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충무로로..... TV속으로..... 또 연극무대로 간 웹툰

웹툰이 갖은 이런 매력과 인기도의 척도가 되는 페이지뷰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콘텐츠 산업의 원천소스가 되어 One Source

Multi Use를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한국 영화계의 최고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으고 6월 개봉을 앞둔 김수현 주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는 웹툰 작가 Hun의 작품으로 북한 특수부대 조장이었던 주인공 남과간첩 원류환(김수현 분)이 '동네바보' 라는 특수지령을 받고 남한의 달동네에 체류하며 동네 주민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그 후 북한의 임무를 받으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의 원작인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 는 죽기 전에 봐야 하는 웹툰 1위로도 선정되고 연재가 끝난 작품임에도 누적 조회수 2억 5천 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영화화 소식이 전해지며 보이고 있는 네티즌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모바일 단편 유니버스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미생' 은 지난 2010년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이끼' 의 작가 윤태호의 작품이다.

웹툰의 대명사 강풀 작가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바보', '이웃사람', '아파트' 는 일찌감치 영화로 제작되었고, '신과 함께(주호민)', '목욕의 신', '3단 합체 김창남(하일권)', '더 파이프(정연식)', '늙이 사는 이야기(서나래)', 그리고 '라스트(강형규)' 는 곧 영화화 될 예정이다. 드라마로 제작된 웹툰은 '매리는 외박 중(원수연)', '꽃미남 라면가게(김민정)' 가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와라! 편의점(지강민)' 가 연극, 뮤지컬로 제작된 '위대한 캣츠비(강도하)', '바보', '순정만화(강풀)', '새끼손가락(이익수)', '삼봉이발소(하일권)' 등도 그 원작을 웹툰에 두고 있다.

네이버에 연재된 '봉천동 귀신' 은 미국의 만화전문 사이트인 '코믹 얼라이언스' 에 번역본이 올라 화제를 뿌리기도 하고 하일권 작가의 '삼단합체 김창남' 은 영국 영화계에, 또 김혜진 작가의 '열아홉 스물하나' 는 프랑스 출판계로 판권이 팔린 상태로 K-TOON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 한국의 웹툰은 세계의 온라인 만화계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은 '웹툰=공짜'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양날의 칼이 된 웹툰계의 현실 속에서 콘텐츠의 가치로 인정하기 위한 완결작에 대한 유료화 확대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이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소재와 주제의 웹툰이 되어 인기에 한몫이 되었다.

판타지물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신의 탑 (SU), 싸우자 귀신아 (임인스), 방과 후 전쟁활동 (하일권), 천년 구미호 (기광)

그저 신나게 웃고 싶을 땐

마음의 소리(조석), 악플게임 (미티), 웃지 않는 개그반 (현영민), 역전 야매요리 (정다정), 놀지마 정신줄 (스튜디오 농정)

웹툰 드라마에 당분간 푹 빠져보고 싶다면

소녀 더 와일즈 (Hun,제나), 오렌지 마말레이드 (석우), 당신만 몰라! (유리아), 아는 사람 이야기 (오묘), 아이들의 권 선생님 (호우)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 하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가우스 전자 (곽백수), 미생 (윤태호), 쌤니다 천리마타미 (김규삼)

엄마&아이가 함께 본다면

일상 날개짓 (나유진), 판다독 (판다독), 외라편의점 (지강민), 혈액형에 관한 고찰 (박동선)

그 외 독특한 주제의 웹툰들

동성연애, 퀴어 등 성적 소수자 이야기를 다룬 '어서오세요 305호에(와난)', 심리학자의 자문으로 완성되는 전문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이종범)', 주인공 수지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을 담은 '다이어터(캐러멜,네온비)' 등이 있다. 전문 시사만화인 '본격 제2차 세계대전만화(급니스트)', 좋은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가 쏘독쏘독(어택)' 등 기발하고 특출 튀면서 때론 가볍게 때론 무겁게 골라보는 재미를 주는 것이 웹툰의 세계다.

webtoon

탄생시킨 최고의 스타인 웹툰은 최근에는 BGM사용은 물론 스크롤에 맞춰 내레이션이 나오고 특정한 컷에 멀티미디어 효과를 넣는 3D웹툰, 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최적화한 스마트툰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웹툰의 변화무쌍한 변신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고위험군 신생아 살리는 수호천사

‘♥♥아기 아빠, ♥♥아기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아픈 환자나 대상자가 아닌 ‘우리 아가, 우리 강아지’라 부르며 돌보고 있는 우리 센터를 소개할까 합니다. (글_정희숙 수간호사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우리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37주 미만의 극소 미숙아는 물론 호흡기 또는 소화기 질환,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앓는 고위험 신생아 모두가 치료 대상입니다.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작아서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고위험 신생아를 보살필 때 센터 의료진은 늘 집중합니다.

여린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손끝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서로 도우며 최상의 팀워크를 이뤄야 합니다. 언제나 가족 같은 분위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협동심! 이것이야말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료진의 최고 장점이자 최고의 치료 묘약이 아닐까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개소 의의

최근 고령 임신부, 다태아 증가로 인해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

‘국가기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개소식▼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병원도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인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전문치료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센터장▲
전용훈 교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새롭게 단장

첫째, 규모면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중환자실 12병상에서 10병상을 증설하여 총 22병상을 운영함으로써 좀 더 많은 신생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과감한 투자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미숙아들의 상태를 즉시 체크 할 수 있는 모니터와 호흡을 도와줄 인공호흡기, 엄마 배속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줄 인큐베이터 등 각종 최신 장비(청력검사, 심장 및 뇌 초음파 기계 등)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신생아 전문 의료진의 충원으로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용훈 교수 이하 전임의 1명, 전공의 3명과 수간호사 1명 그리고 34명의 간호사로 구성되어 한층 더 높은 질의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높은 수준의 의로서비스 제공할 것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진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생아 진료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근 병·의원과의 긴밀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전 고위험 산모나 분만 시 고위험 신생아의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병원 내 장비와 시설 유지

신 생 아 ★ 집 중 치 료 ★ 센 터



고위험군 신생아는 센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아가를 볼 땐 엄마마음이 된다▲▲

및 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용훈 센터장(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고위험 신생아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후송 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시설의 지역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 내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작지만 귀한 생명을 위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손바닥만하게 태어나 2~3개월간 정성어린 손길로 대하며 동고동락 했던 미숙아를 하늘나라로 보낼 때면 부모님만큼이나 저희 의료진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오랫동안 가슴에 먹먹함이 남게 됩니다.

스스로 숨쉬고, 먹고, 먹은 만큼 배설하는 기본적인 능력,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쉽고 당연한 일이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는 그 기본적인 것이 어렵고 힘든 아가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귀한 생명들에게 남들처럼 당연한 삶을 선사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센터의 마음입니다. 여느 아가처럼 건강하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따뜻한 눈길, 섬세한 손길로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문의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 032-890-2183~4



몽골..... 낮선 땅에서 지구의 가족을 돌보았던 소중한 체험

(글_ 김영태 전임의 / 정형외과
사진_ 김종민)

Prologue

“이번 5월에 몽골에서 의료 봉사가 있고 우리 정형외과에서 한 명 가야 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해봐”
어느 4월의 수요일 아침 컨퍼런스 시간에 과장님께서 의원원들에게 공지하고, 진료 협력팀에서 온 공문을 나에게 쥐어주시면서 나와 몽골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나는 의원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의중을 물었지만, 잠 잘 시간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전공의들과 진료와 수술로 빠듯한 교수님들에게 의료 봉사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전문의를 취득하고 척추 관련 전임의를 하는 내가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몽골은 암묵적으로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 몽골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징기스칸의 나라

약품 처방을 위해서 몽골의 환자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척추 관련 질환 환자와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몽골에 대해 다른 정보도 알고 싶었으나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 떠나는 날까지 몽골은 나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드디어 몽골로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자 반기는 것은 공항 벽면에서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징기스칸이었다. 800년 전 아시아와 유럽을 호령했던 징기스칸은 이제 막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몽골의 정신적 지주로 몽골을 지배하고 있었다.



몽골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

경제적으로는 열악하지만▼
해맑은 웃음을 지닌 몽골의 어린이들



끝없는 평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첫째 날의 일정은 울란바토르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고아원과 거주민들에 대한 진료였다. 1시간의 이동 후, 초원에 위치한 고아원에 도착하였는데, 건물에 비해 너무나도 넓은 운동장이 인상적이었다. 해맑은 웃음을 지닌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고, 주위 거주민들은 예상한 것처럼 척추 질환 및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많았다. 신체검사만으로도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척추 신경이 압박되고, 관절의 마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몸 상태에도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나를 돌이켜 보게 되었다.

둘째 날은 울란바토르에 속한 지역구 내에 의료시설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지역민들에 대한 진료였다. 끝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과 한가롭게
풀을 뜯으면서 이동하는 소, 말, 양들을
보면서 자연의 웅장함과
사람과의 공존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체험을 안고 돌아온 몽골 의료봉사단



펼쳐지는 평원과 한가롭게 풀을 뜯으면서 이동하는 소, 말, 양들을 보면서 자연의 웅장함과 사람과의 공존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군들은 연령대가 높아서 퇴행성 변화 정도가 심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준비해 간 약물을 처방하는 것 이외는 딱히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으며,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하루에 250명 정도의 환자들을 보았으며, 우리가 준비해 간 약물도 거의 소진되었다. 마지막에 보았던 환자들에게는 약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준 것도 아닌데,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들에게서 우리 팀은 삶의 보람 비슷한 뿌듯함을 느꼈다.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던 봉사 팀의 리더,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

테를지 그리고 게르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테를지의 숙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우리 일행 중 일부는 호텔에서, 일부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여정을 풀었고, 밤에 게르에 모여서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누었다. 출국 전에 우리에게 테를지에서의 하루가 주어졌다. 테를지는 산과 기암괴석, 호수 등이 어우러진 광활한 초원 지역인데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자연의 장관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그 장관을 묘사하는 것은 부족한 필력을 드러낼 뿐이었다.

Epilogue

의료 봉사라는 명목으로 간 몽골이지만 귀국 후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삶에 긍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내가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 가정의 달에 한국의 가족에게는 잠시 소홀하였지만 낮선 땅에서 지구의 가족을 돌보았던 소중한 체험은 나를 포함한 인하대병원 몽골 의료 봉사 팀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었다. 몽골로의 의료 봉사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정형외과 강준순 과장님과 조규정 교수님, 우리 봉사 팀의 리더로서 항상 활력을 불어 넣어주셨던 김형길 교수님, 몽골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셨던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님, 약국 운영과 약품 조제 및 포장, 주사제 처치 등 한국 아줌마의 초능력을 보여주셨던 김설아, 박수진 선생님과 예비 아줌마 이은정 선생님 그리고 현지 봉사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해준 김정희, 김종민, 김필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Tip.

몽골 사람들은 몽고라고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몽고라는 명칭은 청나라 이후 중국 한족이 몽골족을 경시하면서 부르는 것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슬로시티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통해
“느리지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환경과 고유음식, 전통문화 등을 지키며
생산성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느림이 주는 가치를 통해
삶의 높은 질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글_ 김시현 / 진료지원팀)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 내 가슴속엔 구신도 많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슴 먹먹한 진도아리랑의 가락이 내 마음속에 일렁인다.



동네 개들도 고등어 한 마리씩
물고 다니던 섬

슬로시티 청산도를 다녀와서



2013. 4. 13 AM 4:30_ 완도 도착. 새벽 공기가 차다. 완도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청산도로 향하는 배에 승선 했다.

AM 6:00_ 선상에서 남해 바다의 향기에 취해 있을 무렵 동쪽 바다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솟아오른다. 내 맘속에 불덩이 하나 안고 간다.

AM 6:50_ 청산도 도청항 도착. “살으리 살으리랏다. 청산에 살으리랏다” 선조들이 읊조리던 선망의 나라가 청산도와 같았을까?

따스한 기온과 푸른 산천, 쪽빛 바다에 둘러싸인 청산도에서의 시간은 고요히 흘러간다. 이른 아침인데도 미항길은 부산하다. 청산도의 관문인 도청항부터 선창(부둣가)을 따라 걷는 미항길은 관광객, 상인,



Prolouge

슬로시티 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에서 슬로푸드 먹기와 느리게 살기로 부터 시작되어 현재 150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완도군 청산도가 지정되었다.

Episode

청산도는 물기 덜 마른 한 장의 수채화다. 청산도는 꿈결처럼 아련한 그리움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청산도. 유채꽃, 청보리, 마늘밭, 구들논, 돌담길, 초분, 서편제 촬영지..... 그리고 바다와 하늘. 이곳의 바다와 하늘은 눈부시도록 푸르다.

청산도 슬로길은 49.195km로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등록되었다. 하지만 슬로길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청산도에선 풍경에 취해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진다.

2013. 4. 12 PM 11:00_ 트레킹동호회가 청산도 여행을 떠났다. 차영덕 교수님(트레킹동호회 회장)을 비롯한 40명의 회원들 얼굴이 밝다. 낯선 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쉽게 가시질 않는다.

주민 그리고 청산도의 농특산물이 한데 모이는 길로 바닷가 삶의 활기가 넘치는 길이다. 특히 4월 한 달은 청산도의 <슬로시티축제>가 있어 미항로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바다와 하늘과 티 없이 맑은 공기..... 그만 청산도와의 사랑에 빠진다. 미항길을 지나오니 낮은 지붕의 옛집들이 웅기증기 모여 앉은 사랑스러운 작은 마을이 나온다. 구불구불 낮은 돌담길 걷다 보니 구들장 눈에 유채꽃이 가득 담겨있다. 구들장 눈은 지형적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는 농사법이다. 구들장 눈은 청산도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생활력과 근면성을 상징하며, 올해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 청산도 주민들의 땀과 애환이 섞인 구들장 눈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린다.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셋노란 유채꽃이 별처럼 쏟아지고, 무릎까지 자란 청보리가 바람에 춤을 춘다. 서편제길이란 뜻말이 없어도 금방 길 이름을 알 수 있겠다. 서편제의 주인공들이 사진 속에서 반가이 맞아준다.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으로 시간여행을 한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 내 가슴속엔 구신도 많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슴 먹먹한 진도아리랑의 가락이 내 마음속에 일렁인다. 구불구불 황톳길에서 북을 치는 동호와 구성지게 진도아리랑을 부르던 송화와 아버지 유봉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밝힌다.

해안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수평선이 마치 폭포처럼 바다의 끝에 걸려있다. 청산도에선 수평선마저도 감탄스럽게 아름답다.

화랑포에서 새 땅 끝을 연결하는 화랑포길. 화랑포길을 돌아 나오면 바다를 품고 있는 해안 절경의 사랑 길이 펼쳐진다.

사랑길 연애바위에 설치된 울타리에는 사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나무 엽서가 걸려있다.나도 흔적을 남겨 본다. <2013. 4. 13. 인하대병

원 트레킹동호회 핏팅!>라고. 청산도는 전복이 유명하다. 본래 청산도 인근 해역은 물고기가 바글바글 끓던 천혜의 어장이었다. 고등어 철에는 동네 개들도 고등어 한 마리씩 물고 다녔단다. 하지만 대형 어선이 나타나면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싹쓸이 하고, 그 수가 줄어 이제는 천연 어장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전복 양식이다. 청산도에서 전복만큼 유명한 것이 마늘이다. 섬 어디를 가도 푸르게 솟아난 마늘 대를 볼 수 있다. 청산도에선 재래종 마늘을 <명탕구리 마늘>이라 부른다. 어디에 심어도 가리지 않고 바보처럼 쑥쑥 자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탕구리 마늘 사이사이에 달래가 지천이다. 의좋은 형제처럼 다정하게 바람에 춤을 춘다. 참 귀엽다. 작은 마을의 돌담에 기대어 할머니 한 분이 귀여운 달래를 파신다. 크게 한다발 묶어 놓고 이천 원이라니 착한 가격이 너무 놀란다. 달래가 가득 담긴 봉투가 뿌듯하다. 마치 청산도의 봄을 봉투 한 가득 담아가는 기분이다.

PM 1:00_ 도청항에서 완도로 가는 배에 승선하다.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이 아쉽다. 완도 건어물 시장에서 즐거운 구경을 하고 인천으로 향한다. 무박 2일의 일정이 곤험던지 차에 오르자 모두들 기절한 듯하다. 청산도의 미역처럼 나도 춤 출어져 의자에 붙어버렸다.

Epilogue

탄식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지만 어딘지 애뜻한 정서가 피어오르는 4월의 청산도는 잊지 못할 잔상을 남긴다. 드넓은 바람에 춤추는 청보리밭,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유채꽃, 작고 아담한 돌담길 사이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추어 버린다. 돌담길을 돌면 구성진 진도아리랑의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판소리 같은 섬마을. 청산도의 봄은 어느 계절보다 찬란하다.



상담활동에서 모토는 늘~ **‘안 돼요’보다 위로를, 그리고 가정에 희망을 주는 것!**

저소득가정과 이혼가정의 아이들에게 정신관련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 갑작스런 이혼이나 질병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것이다. 강동레 씨는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쌀이나 부식, 간식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스로 찾아오도록 독려한다.

(글_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지금은 잊혀진 역사의 한 장면.

1978년 2월 21일 동일방직 인천공장(만석동 소재)에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 측에 매수된 남성노동자들이 닥치는 대로 똥물을 퍼붓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어용노조의 똥물투척에 대해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옷을 벗고 저항한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당시 해고된 124명의 여성노동자들 나이는 17~18세. 스무살도 채 안 된 그녀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회적으로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복지투쟁을 계속했다. 이들은 30년이 넘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이 어느새 초로의 중년으로 접어들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인천 도화2, 3동 주민센터 행복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강동레 씨의 과거에는 동일방직사건이 오롯이 남아 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인천시 총무이

자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그녀에겐 시 여성정책과를 비롯하여 각계의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자문요구가 쇄도한다. 2008년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올해로 5년째. 그간 항암제 치료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거기에 심리학 석사졸업까지 초인적으로 달려왔다. 1978년 당시 해고노동자의 막내로 참여했던 17세의 강동레 씨는 전복 임실이 고향이다. 가난한 집안 7남매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 아들만 공부시키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공장에 취업해서 야간학교를 졸업하는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다. “동일방직 취업 경쟁률이 대단했어요. 30명 모집에 300명이 몰렸죠. 취직조건도 키 160센티 이상, 1분에 140걸음 이상을 따지는 등 까다로웠어요. 합격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기쁨이 불과 9개월 만에 좌절될 줄 몰랐죠.” 강동레 씨는 동일방직 야학활동에서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김근태 씨로부터 사회를 보는 눈을 배우고, 김민기 씨로부터 노래와 연극을 배웠다.

해고노동자가 된 후 제물포 후지카공장에 입사해선 폐결핵을 얻었고, 남자들이 하는 쇧덩어리를 운반하다 엄지발가락이 부서지는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월급이 3만 4천 원. 그 돈을 벌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했으나 블랙리스트로 인해 번번이 쫓겨나가거나 죽이겠다는 위협 때문에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1988년 신학생이던 남편과 결혼하여, 교회 사모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상담원 활동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구로동의 서울한영신학대학에 진학, 사회복지와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다. 유방암 수술 후의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집에 누워있으면 죽고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주민센터에 나가 상담원 활동을 시작하니 다시 의욕이 생기더군요. 재겐 상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큰 힘이었죠.”

밑바닥 삶의 현장과 늘 만나야 하는 행복상담원으로서의 강동레 씨는 보람의 크기만큼 고충도 컸다. 정신과 질환자와 알코올 중독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각구별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정작 상담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약물치료 외에 교육과 상담을 병행해야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해나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강박성 정신분열로 운동네에 소란을 피우던 23세의 여대생에게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을 병행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최근 사례의 경우, 장장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상담은 종종 기나긴 인내를 요구한다.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가정과 이혼가정의 아이들에게 정신 관련 질환이 많다. 갑작스런 이혼이나 질병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것이다. 강동레 씨는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쌀이나 부식, 간식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스로 찾아오도록 독려한다. 이들 중 80~90퍼센트는 신체적 질환자로 병원에 연계하고, 주거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주택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2년간 상담을 거쳐 지금은 술을 많이 줄인 가정도 있지만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재택교육 서비스가 시급하다는 강동레 씨. “저소득가정의 경우, 알코올중독자 비율이 현재 40~50퍼센트에 달해요. ‘스톱’이란 술 끊는 약이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판매 금지된 약임에도, 이 약을 비밀리에 구입해요. 중독자가 있는 집안에서 가족들의 자구책인 거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알코올중독의 비참함, 그 환자를 매일같이 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알코올중독 가정을 방문해보면, 집이 폭탄 맞은 상태와 같다고 한다. 강동레 씨도 학익동의 상담에서, 갈 곳이 없는 할아버지를 교회에서 7년째 모시고 살고 있

는데, 술 먹고 대소변을 옷에 지리며 거리에서 잠들어버리는 할아버지 때문에 새벽마다 잠 설치기 일쑤였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우선 위로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강동레 씨가 상담활동에서 늘 다짐하는 모토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이다. 절망 속에서도 가정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강동레 씨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 안되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라며 미소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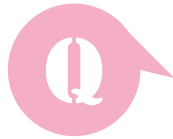
과거의 고통을 털어내고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강동레 씨. 스스로를 치유했고, 오늘도 계속 치유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 힐링의 힘을 이웃들에게 전할 것이다.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 032-830-1004
- 남구 도화2, 3동 행복상담원 강동레 ● 도화2, 3동주민센터 032-882-2904

1 2 3

1. 인천시에서 표창을 받는 강동레 씨
2. 2013겨울철 난방비지원사업 대상자와 함께 (경인방송-NIB뉴스)
3. 인천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교육생들과 함께 (맨 앞줄 좌측에서 네 번째 보라색 옷을 입은 이가 강동레 씨)





머릿니가 생겼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머릿니는 작고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사람 몸 특히 머리에 서식합니다. 주로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나 장 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위생상태가 나빠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살아있는 머릿니를 발견하였다면, 약국에서 샴푸타입으로 된 머릿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1) 컨디셔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잘 행구어 낸 후 수건으로 가볍게 말립니다.
- 2)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약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 줍니다. 특히 귀 뒤쪽, 목 뒷부분을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대로 10분간 두었다가 행구어 냅니다(10분을 넘기지 마세요).
- 3) 이후에는 촘촘한 빗을 사용하여 죽은 머릿니와 서캐를 제거합니다.
- 4) 약을 사용한 후 7~10일 후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머릿니 약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서캐를 100% 제거 하지 못하므로, 꼭 한 번 더 시행하여야 합니다.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닌 머릿니, 예방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비닐봉지에 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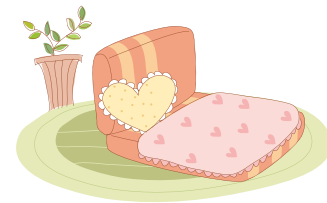
다른 식구들도 모두 치료해야 하나요?



머릿니는 직접 머리와 머리를 접촉하는 경우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빗,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구 중에 머릿니가 있는 사람과 같은 침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는 머릿니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머릿니 약으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머릿니가 옮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는 옷이나 이불은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담갔다가 세탁을 하며, 물로 세탁할 수 없는 제품은 비닐봉지에 2주간 밀봉하여 둡니다. 가구나 방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꼼꼼히 청소합니다.

사용하였던 빗은 뜨거운 물에 5~10분 정도 담가두면 좋습니다.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치료와 요양 효과를 위해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된 전경



특화된 전문시설을 갖춘 재활치료센터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가족처럼 힘이 되어, 끝까지 지켜주는 재활전문팀



▲임윤병 병원장

재활병원 단일 규모로는 최고 수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에 건립되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 중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에 건립된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개원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150상 규모로 건립된 경인의료재 활센터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재활병원 단일 규모 로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병원 앞 뒤쪽에 2만여 평의 넓은 정원은 휴식공간으로 치료와 요양 효과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도록 최적 의 환경을 조성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재활전문 의료진이 이끄는 재활 전문팀 이다. 뇌졸중, 뇌경색, 교통사고·산업재해 후유장애 등 급성기 치료 후 잔존 장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상의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에 복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의 기능을 다하여 의료재활의 질 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가족처럼 힘이 되는 재활전문팀이 되겠다고 임윤병 병원장은 밝힌다.

재활치료센터 - 최고의 의료진과 50여 명의 재활치료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최신의 시설과 장비 등 특화된 전문시설을 갖 춘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최고의 의료진과 50여 명의 재활치료사가 정성 으로 치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고 있다.

재활치료센터는 수중치료실, 스포츠재활치료실, 작업·인지재활치료실, 운동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온열통증치료실을 갖추고 대 상과 증상에 적합한 치료로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다. 또한, 클레이아트, 종이공예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미술품 전시, 음악 회, 마술쇼, 드라마 촬영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치료의 극대화는 물론 입원생활에 지친 마음의 위안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거동이 어려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 소득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 의료봉사단체와 협약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사업·무 의촌 의료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장애아동 돕기 바자행사개최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사 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제2의 국립재활원으로 거듭나며 경인지 역을 대표하는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발전을 꿈꾼다.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 032-899-4000

개원 17주년 기념식 성료 - '교직원들의 단합으로 더 크게 비상하자!'

5월 27일, 인하대병원이 개원 17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개원 기념식은 장기근속상과 공로 및 모범 직원상을 수여하고,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JCI 재인증 평가 시작일에 진행된 개원기념식이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며 "JCI 재인증과 신관건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보호자 없는 병동 추진 등 다양한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더 크게 비상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단합과 소통, 그리고 화합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제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의무상황실' 운영 및 마라톤 동호회 대회 참가



3월 31일, 인하대병원은 제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의무상황실' 운영을 맡아 참가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국제육상연맹(IAAF)이 인증하는 하프국제대회(사)인천마라톤 조직위원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공동주최하여 10,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본원은 올해 지역사회 친화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속적 의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개소식 성료



4월 1일,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2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된

후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소식을 가졌다. 과감한 투자를 통한 최신의료장비 보강, 신생아 전문의료진 등 진료인력충원으로 한층 더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 졌을 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진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근 병의원과 긴밀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승림 병원장은 "특히 본 센터는 인천을 넘어, 부천과 시흥, 안산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된 충남 서해안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료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의료진, '민들레 진료소' 의료봉사로 공로상 수상



4월2일,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조순구 교수, 신장내과 송준호 교수,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는 '민들레 국수집 개원 10주년' 을 기념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조순구 교수 등 의료진은 3년 전부터 매월 2차례 국수집을 방문하여 지역소외계층과 노숙인 등에 사랑의 진료를 제공해왔다.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의술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정부관계자 본원방문 '해외의료관광사업협력약속'



4월 9일, 인하대병원은 최근 의료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주정부 보건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했다. 방문단은 인하대병원의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을 둘러보며 놀라워했고, 향후 해외의료관광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나래병원과 진료협약체결



4월 11일, 인하대병원은 나래병원(연수구 청학동 소재)과 진료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홍보, 응급환자 및 중환자 전원 등 통합적인 진료의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의료기관 확대로 지역사회 진료의뢰시스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사회 인지도 강화



3월 29일부터 인천의료의 중심, 인하대병원이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암치료 전문병원, 그리고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인천 문학경기장 펜스광고, 1호선 지하철 내 광고판(주안, 동암, 동인천역) 그리고 40여 곳의 버스정류장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울목도서관, '사랑의 구연동화' 업무협약 체결



4월 23일, 인하대병원은 울목 도서관과 '사랑의 구연동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울목 도서관과 인하대병원은 향후 '책 읽는 인하대병원' Boom-Up을 위해 E-Book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기념 심포지움 성황리 개최



4월 23일,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박현선) 선정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은 국

회의원,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 김교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정영호 인천광역시 병원회장, 윤형선 인천광역시 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림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정부와 인천시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현선 센터장(신경외과 교수)은 체계적인 준비로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체계적 진료시스템, 전문재활치료 및 포괄적 예방관리를 정착화하고, 지역사회 및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지와 연계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강소성 국제진료센터 공무원 및 한국이민재단 관계자 팸투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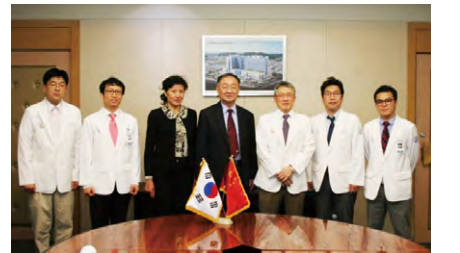
4월 25일, 인하대병원은 중국 강소성 국제진료센터 공무원 및 한국이민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방문단은 국제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그리고 사이버나이프 등 최신의료장비와 18층 VIP 병실을 둘러보며 인하대병원의 첨단 의료시설에 만족해 했다.

어린이날 기념 병동에서 꿈꾸는 동심 위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병동의 어린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는 인하대병원 임원진의 '사랑의 책 선물 전달식'과 인형극, 그리고 케익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며 지내는 동심들에게 쾌유의 희망을 선물했다.

인하대병원, '중국 의료네트워크 구축'



5월 3일, 인하대병원은 '제2회 중국 천진 - 인천 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의 인하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과 중국 천진시 위생국장 등 10명이 참석하여 양 도시 의료진의 의료기술 교류 및 의사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2013년도 몽골 의료봉사 '몽골 초원에 사랑의 의술 선물'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5월 5일부터 4박 5일간 몽골 현지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쳤다. 10명의 봉사단은 울란바토르 및 바기노르구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인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의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약 300여 명을 진료하였다. 김형길 봉사단장은 "이번 의료봉사로 지구촌 의료사각지대에 따뜻한 사랑의 의료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함께 시민건강체험관 운영



5월 4일,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Inha Univ. Hospital 2013

터(센터장 박현선 신경외과 교수)는 인천대공원 야외극장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개최한 '정신건강축제 및 제 6 회 시민건강체험행사'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지역사회에 건강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최되었다.



파란자켓 서비스 선포식 실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개념 동행서비스' '파란자켓 서비스'는 본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발 먼저 다가간 안내하고,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진심 어린 도움이 손길과 배려의 마음을 전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

인 봉사개념이 아니라 병원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이 있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안내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문제 해결력을 높였다.

JCI 재인증 최종평가 시작 - 국내최초 의료원 전 부문 재인증 위한 힘찬 출발

인천대병원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JCI 재인증을 위한 최종평가를 받았으며 3년 주기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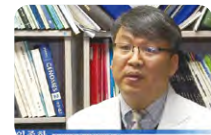
인증을 위해 실시 되었다. 한층 강화된 국제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5명의 JCI 조사자가 현장에서 점검하였다. 인하대병원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국내 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 재인증을 위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 JCI 재인증 최종 획득을 통해 국내 환자는 물론 해외환자들도 믿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제수준의 '환자안전시스템'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한다.

Info desk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예의

2013. 4. 10



출연: 임중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KBS ITV '9시 뉴스'
내용: 화학 방부제의 위험성

2013. 4. 11



출연: 신우영 교수/외과
프로그램: MBC 라디오 '지금
은 라디오 시대'
내용: 간이식의 올바른 이해

2013. 4. 12



출연: 임중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KBS '취재파일 K'
내용: 미세먼지의 공포

2013. 4. 13



출연: 김용성 교수/내분비내과
프로그램: 채널 A '종합뉴스'
내용: 당뇨병의 이해

2013. 4. 15



출연: 김규성 교수/이비인후과
프로그램: YTN
'You are a 닥터'
내용: 어지럼증의 이해

2013. 4. 16



출연: 김규성 교수/이비인후과
프로그램: YTN '뉴스'
내용: 어지럼증의 예방과 치료

2013. 4. 18



출연: 이진우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MBN '건강술루션'
내용: 간암의 예방과 치료

2013.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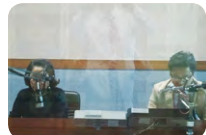
출연: 우성일 교수/심장내과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관상동맥질환의 예방과 치료

2013. 5. 3



출연: 이정섭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프로그램: KBS ITV '9시 뉴스'
내용: 특정 약물의 위험성

2013. 5. 6



출연: 김범수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볼절 검기와 등산으로 인한 관절질환

2013. 5. 6



출연: 김철수 교수/
혈액중양내과
프로그램: CBS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
내용: 암 치료과정 및 예방법

2013. 5. 9



출연: 임중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SBS '8시 뉴스'
내용: 시설아동 급식비 관련 인터뷰

2013. 5. 10



출연: 방병욱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MBC '생방송 원더풀 금요일'
내용: 매운맛의 비밀

2013. 5. 13



출연: 변지원 전문의/피부과
프로그램: KBS
'굿모닝 대한민국'
내용: 피부암의 예방과 치료

2013. 5. 14



출연: 임중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KBS '사시기획 창'
내용: 초미세 먼지의 피해

2013. 5. 14



출연: 전용훈 교수/
소아정신과
프로그램: KBS '사시기획 창'
내용: 초미세 먼지의 피해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6/13(목), 7/10(수) 오후 2시 ~ 4시	3층 2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3638

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및 문의
2013. 06. 11(화) - 오후 2시~3시	ACS(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이해와 치료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본원 강당
2013. 06. 13(목) - 오후 2시~3시	연령대별 황반변성의 이해와 치료	안과 문연성 교수	본원 제 1강의실
2013. 06. 11(화) - 오후 3시	중년여성의 부인과 질환	산부인과 송은섭	신세계아카데미 (032)430-1501
2013. 07. 09(화) - 오후 3시	여름철 피부관리	피부와 변지원	
2013. 08. 13(화) - 오후 3시	심혈관 질환	심장내과 우성일	

●문의: 교육수련부 ☎ 032-890-2641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3. 06. 08 ~ 2013. 06. 28	소장작품 전시	인천문화재단	2층 갤러리
2013. 06. 29 ~ 2013. 07. 19	여휴(女休) - 현대여성들의 작은 소망의 휴식을 표현	양금선	
2013. 07. 20 ~ 2013. 08. 09	함께하는 마음전	하심희	

●문의: 홍보팀 ☎ 032-890-2608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랑새 소식

여성암센터 교육

- 일시: 2012년 6월 13일(목)
오후 2시부터 4시30분 까지
- 내용: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이란?, 재발 및 추후 관리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장소: 3층 1세미나실
- 대상자: 유방암 환우 및 가족

4월 18일 대부도 파랑새 आयु회

4월 꽃피는 봄을 맞이하여 대부도 팬션으로 봄 나들이를 다녀왔다. 만물이 소생하는 향기로운 봄바람도 쐬고 예쁜 꽃 구경도 하면서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이번 आयु회에는 항상 먹을 거리에 관심이 많은 파랑새 회원들이 잡곡밥도 함께 만들고 여러 가지 나물들과 반찬들을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서 건강정보와 음식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도 모두 잊고 나만을 위해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견디고 일어난 선배 환우

들과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आयु회였다.

다음행사

- ▶ 5월 21일: 파랑새 체육대회
 - 장소: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 시간: 오전 11시 ~ 오후 4시 까지
- ▶ 6월: 불우 환우돕기 바자회
(추후 일정 공지 예정)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fe.daum.net / inbluebird

이하대병원 진료안내

2013. 6. 1 현재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목	심장혈관센터 (☎2440~1)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수, 금	월, 화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서비스진료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메암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호흡기내과 (☎2219)	이흥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수(2,4주)	▶메암센터	김철우	*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화, 목	▶메암센터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목(1,3주)			() : 주별진료	김철우	*	임상약리/약동분석		수, 금
폐암 내과 센터 (☎3890)	이흥렬	*	폐종양	금	수	▶메암센터	김철우	*	임상약리/약동분석	수, 금	목	정석빌딩 1층 임상시험센터내	
	류정선	*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화, 목	월			조상현	*	임상약리/약동분석	목		
흉부외과	이현규	*	폐종양	월	목	▶메암센터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메암센터	
	남해성	*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월, 화, 금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화, 목	▶메암센터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월, 목	▶메암센터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수	화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3360, 2215)	김순기	*	소아비만	금		▶메암센터	김순기	*	소아비만	수, 금	수, 금	▶메암센터	
	이재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목			최윤미	*	소아외과	수, 금		월, 수
소아 청소년과	김순기	*	소아비만	금		▶메암센터	김영철	*	소아비만, 뇌하수체, 내분비	수, 금	수, 금	▶메암센터	
	이재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목			최윤미	*	소아외과	수, 금		월, 수
가정의학과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목	▶메암센터	박준은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메암센터	
	일 반			금	금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월, 목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메암센터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증, 소아	월, 수, 목	월, 목	▶메암센터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목
신경외과 (☎2370)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월, 목, 금	▶메암센터	현동근	*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수	월, 수	▶메암센터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시아비네티프, 척추축만증	금		화, 목

INHA Univ. Hospital

전체 진료과 토요일 오전진료 합니다.
각 진료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박승림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수		2시부터 시작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금	수, 목, 금	코성형·수요일	
	문경호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파,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성형술	화, 목	화	외래 예사 진료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파,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수요일
	기세휘	*	미세수술, 수유선, 화상, 흉터, 안면신경, 미용수술	수, 금	금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월, 화, 목	월, 수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메암센터	신경과 (☎3860)	차흥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메암센터
	신정원	*	피부암, 피부질환, 피부미용, 피부노화관리, 여형성기형	수, 금	수, 목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화, 목, 금	수, 목	결석은 무조건 (비뇨기과)	내시경 (☎3860)	최승태	*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수	▶메암센터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최현우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수, 목, 금	금	
산부인과 (☎2270)	이병익	*	중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메암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수, 목	▶메암센터
	송은섭	*	부인과종양	수, 목, 금	월			이연지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화, 수, 목	월, 화, 목, 금	
여성암센터 at 3rd floor	송은섭	*	부인과종양	수	월	▶메암센터	국제진료센터(☎2080)	박홍재	*	일반내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메암센터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월			홍정민	*	일반내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통증치료실 (☎3921)	민경진	*	부인과종양	화, 금	화	▶메암센터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	통증치료	화, 목	화, 목	▶메암센터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월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영상의학과 (☎2740)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월	▶메암센터	영상의학과 (☎2740)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메암센터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연수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메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메암센터
	김연정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화, 목	
사이버 방사선 나이프 센터 (☎3076)	김연수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메암센터	사이버 방사선 나이프 센터 (☎3076)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메암센터
	김연정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화, 목	
해의학과(☎3160)	김연수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메암센터	해의학과(☎3160)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메암센터
	김연정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이종환	*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질환, 고령자	월, 화, 목	월, 목	
직업환경의학과 (☎2861)	김연수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메암센터	직업환경의학과 (☎2861)	박신규	*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화, 목	월, 금	▶메암센터
	김연정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환철	*	뇌, 신경정신의학 관련 업무별평가, 업무환경평가	월, 수	수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메암센터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메암센터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수, 목			윤정호	*	치주과	화, 목, 금	월, 화, 목	
안과 (☎2400)	오충택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목	▶메암센터	안과 (☎2400)	박찬운	*	보철과	화, 수, 목	화, 수, 목, 금	▶메암센터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수, 금			박선형	*	교정과	월, 수, 금	월, 수, 금	
응급의학과(☎2301)	강성모	*	해의연수(2013. 3 ~)	화, 목	월	▶메암센터	응급의학과(☎2301)	조현영	*	구강외과	수, 목	월, 화, 수, 목, 금	▶메암센터
	김나래	*	백내장, 녹내장	화, 목	월			김영준	*	망막, 사시, 각막	월, 수	월, 목, 금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 을 만드는 가치기부

인하대병원 신관건립사업 - 국내 선도 특성화 센터

인하대병원 신관 건립사업은 초일류 의료기관의 표본을 제시하는 최첨단 병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국내 Top 7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관은 중증·고령질환 전문병원 컨셉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특성화 전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 전문센터에는 암센터, 심장·뇌·혈관센터, 류마티즘·관절센터 등을 배치하고, 최첨단 장비 도입 및 친환경 건축을 통하여 치유적 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요

- 대지면적 : 약 5,467평
- 건축면적 : 약 2,000평
- 건물면적 : 약 26,000평
- 건축규모 : 지상 15층 지하4층
- 병상규모 : 약 600병상
- 준공예정 : 2016년 예정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인하대병원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 개인, 단체 및 법인 명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후원자께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_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_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행정지원실 내 발전기금팀
 - ◆ 문의사항_ 궁금하신 내용은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0/3391 FAX : 032)890-3000 e-mail : inhadf@inha.com
-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